

<본 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드립니다>

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퀀텀점프의 시작, 1Q 매출 전년비 2배 성장 1분기 만에 지난해 온기 누적매출의 50% 달성... 압도적인 성장 입증

- ▶ 1분기 매출액 전년비 109% 상승한 163억 원 기록... 양산 부문 매출 5배 이상 증가
- ▶ 양산수주 누적 증가 및 4차산업 연계 개발수주 확대로 실적개선 가속화 전망

<2018-05-15>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올 1분기만에 지난해 온기매출의 절반에 해당되는 실적을 올리며 퀀텀점프의 시작을 알렸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대표이사 김준석)가 2018년 1분기 매출 16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 넘는 급성장 수치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5억 8천만 원, 8억 7천만 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였다.

이로써 에이디테크놀로지의 당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실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등 큰 폭의 외형성장을 이뤘고, 양산 매출증대에 따라 수익성도 회복하며 질적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매월 모바일용 메모리 컨트롤러 IC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양산매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5G, 빅데이터, Automobile 등 4차산업 관련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개발매출로 이어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창사이래 첫 네 자릿수의 실적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모바일용 메모리 컨트롤러 IC의 양산은 확대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시된 해당 제품의 양산 수주 누적 금액만 490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 연내 5G 관련 제품 양산 추가가 기대되고, SSD 메모리 컨트롤러, 차세대 모바일용 메모리 컨트롤러IC 개발 완료에 따른 초도 물량 양산도 기대되고 있어 향후 실적은 더욱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에이디테크놀로지 김준석 대표이사는

“최근 차별화된 시스템반도체 기술과 제품고도화에 역점을 둔 결과 업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 고객사와의 양산 수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며 “최근 4차 산업 기반 신규 개발

프로젝트도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양산 매출 가시화로 본격적인 결실기에 진입하고 있는 추세여서 올 한해 퀀텀점프 원년달성이 기대된다"고 포부를 전했다.

[참고자료]

<에이디테크놀로지, 2018년 1분기 실적>

단위 : 억 원

	2017.1Q	2017.4Q	2018.1Q	YoY(%)	QoQ(%)
매출액	78.1	90.6	163.1	108.8% ↑	80.0% ↑
영업이익	(5.3)	0.3	5.8	흑자전환	1,833.3% ↑
당기순이익	(3.2)	2.7	8.7	흑자전환	222.2% ↑

▣ 자료문의 : 에이디테크놀로지 유동희 차장 (031-776-7574)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